

■ 연재 ■

하이브리드 시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역사서술 다시 읽기(또는 다시 쓰기)*

양재혁

쓰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육체는 죽어야만 한다.
그것이 역사의 윤리이다. 역사는 지식 체계의
도움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역사는 이야기된다.

미셸 드 세르토¹⁾

I. 머리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현재의 팬데믹 세계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이 제시하는 미래 사회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에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낸다. 첨단 기술의 개발과 발전은 과거와 비교할 때 놀라울 정도의 막대한 부와 안락을 산출하지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위험과 불안도 함께 동반한다. 인공지능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원하지 않더라도)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삶과 사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환경은 서구 근대의 기초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8538).

1)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aris: Gallimard, 2002. Première parution en 1975), p. 384.

구성하는 ‘과학’이 선도하는 ‘진보’와 그것이 생산한 ‘질서’로 구성되는 안정되고 안전한 그리고 편안한 체제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재난의 시기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과 전지구적 재해를 산출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은 근대 서구가 전망한 사회 발전의 정상적 궤도에서의 탈선 또는 이탈이라기보다는 그 산물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가 지적한 주체/객체, 사회/자연, 담론/사물의 대분할에 이어 역사적으로 서구와 비서구라는 대분할이 형성된 서양 근대에서 과학은 최고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과학은 비정상적인 대분할적 사유방식에 기초하면서도 그것과는 무관해 보이는, 다시 말해 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하고 이용하고 있다. 과학은 가치, 윤리, 주관, 감정 등과 관련된 정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이라는 객관적 세계를 다루면서, 그 세계의 운영 원리, 법칙으로 불리는 보편적 질서를 수립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며,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바이러스, 빈부격차 등의 자연적·사회적 문제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근대로부터 간직하여 온 진보라는 신화를 지금도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그 기원과 발전 과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구 사회의 전근대/근대, 과거/현재, 객체/주체, 문명/비문명, 서양/동양 등의 구분을 고정적으로 수용하는 이분법적 사고 또는 인식은 ‘진보의 역사를 이끄는 과학’이라는 신화의 기반을 굳건하게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매스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지구 생태계 위기, 기후 문제 또는 지구 온난화, 인공지능, 무역 분쟁, 질병, 유전자 조작, 미세먼지 등등의 문제는 과학, 정치, 사회, 윤리, 경제라는 어느 하나의 구획 안으로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혼합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세계는 이분법적 단절적 인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hybrid)들이 증식해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 역시 단지 인간과 인간의 활동 또는 개발과 구분되는 자연 세계의 문제, 곧 바이러스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 바이러스를 사회와 분리된 자연의 세계에 국한하고 그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태도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의 재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양한 현대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하이브리드 스타일”²⁾이 필요하다.

20세기 말 인간 사회와 자연 간의 분리적 사유에 반대하며 과학에서의 진리와 더불어 자연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과학사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연구가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는 현대 세계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을 ‘사이보그’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면서 하이브리드들이 확산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실재’ 세계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녀의 사이보그 개념은 “유기체와 기계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존재”를 가리킨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Cyborg)는 더 이상 인간/비인간 또는 인간/동물, 인간/사물 등의 구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 실체를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관념을 강조하는 것은 주체/객체로 대표되는 서구 근대의 이분법적 구분이 현실 세계에서 전혀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구분이 더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실체와 현상들이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 사회 공동체에 전지구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낳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사유와 실천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러웨이는 인간과 사회와 분리되지 않은 문화적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범주들의 경계선 위에 있는 잡종적인 하이브리드 실체, 곧 “이상한 경계물(odd boundary creatures) – 원숭이, 사이보그 그리고 여성”, 다시 말해 “괴물들”에 주목한다.³⁾ 해러웨이에게 사이보그는 실재와 픽션의 혼종물로서, “사이버네틱 유기체, 기계와 유기체의 하이브리드, 픽션의 창조물인 만큼이나 사회적 실재의 창조물이다.”⁴⁾ 오늘날의 팬데믹 재난을 낳았을지 모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문제를 비롯하여 해러웨이가 제시하는 현실 문제들은 인간/기계 또는 자연/사회라는 분리적이고

2) Bruno Latour, *FACE À GAÏA: Huit conférences sur le Nouveau Régime Climatique* (Paris: Éditions La Découverte, 2015), p. 13.

3) Donna J. Haraway,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991), pp. 1-4.

4) *Ibid.*, p. 149.

단절적인 사고로는 다룰 수 없는 하이브리드 실체들로 구성된 혼종적 관계의 산물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 기술 시대는 수많은 ‘하이브리드’ 존재들과 함께 새로운 다양한 문제들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학, 환경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범주 어느 하나로 한정할 수 없다. 인공지능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의 다양한 문제들을 인문학적, 특히 역사학적 전망을 통해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기존의 이분법적 인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해 보인다. 서구 근대성이 세운 분리의 신화는 역사학을 비롯한 전통적 학제에서 여전히 강력한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 역시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글은 서구의 이분법적 근대성의 균열을 확인하는 ‘하이브리드’ 사상가로 잘 알려진 역사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가 전통적 역사학에게 던진 새로운 ‘하이브리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혼종학: 타자에 관한 과학

미셸 드 세르토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와 같은 대표적인 현대 프랑스 사상가들에 비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이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미셸 드 세르토의 작업이 미국에서 먼저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그의 작업에 관한 관심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화사회학 분야에서 세르토가 논의하였던 ‘일상생활’, ‘문화’, ‘저항’, ‘횡단성’ 등과 같은 주제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세르토의 고유한 개념, 곧 ‘전략/전술’, ‘장소/공간’과 같은 개념들은 문화사회학의 다양한 주제를 새로운 지평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셸 드 세르토는 역사가, 철학자, 기호학자, 신학자, 정신 분석가 그리고 문화사회학자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폭넓은 지적 관심 영역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프랑스는 물론 미국의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과 연구를 실천했다. 미셸 드 세르토의 경력이 보여주는 이러한 학제적·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작업 전체에 공통적인 주제, 곧 ‘타자’에 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세르토는 타자에 관한 적절한 연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사료에 기반을 둔 전통적 역사학은 물론, 역사서술과 역사 방법론을 넘어 문화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제와 연관되는 연구 성과를 남겼다. 세르토는 자신의 작업을 타자에 관한 과학, 곧 혼종학(hétérologies)을 구성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미셸 드 세르토의 작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에게 “‘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기본적인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프랑스의 모든 이론적 작업 중에서 미셸 드 세르토의 작업은 문화 연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저항의 문제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학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연구로 이해될 수 있다. 세르토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포스트구조주의 작업 주제와 상당한 연관을 지닌다. 마크 포스터(Mark Poster)가 거론한 “언어에 주어진 특권, 경제적 문제들과 대립된 것으로서의 문화적 문제들에 대한 주제화, 단일한 저자 주제에 대한 비판, 전체화하는 범주와 폐쇄적 위치에 대한 거절, 역사의 위대한 시대(근대성)가 종말로 가고 있으며, 아직 여전히 구분하고 이름 붙일 수는 없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출현하고 있다는 생각”과 같은 주제들은 세르토의 작업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르토의 작업은 포스트구조주의자들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주체를 규정하는 데 이론적인 주저함의 결과로서 저항의 문제를 회피하는 데 반해”, 세르토는 주체와 저항의 문제를 분명하게 자신의 연구 주제로 인정한다. 미셸 드 세르토는 자신의 작업이 출발하였던 지점은 맑스주의라고 명확하게 밝힌다. 미셸 드 세르토는 포스트구조주의 기본 개념들 또는 주장들에 의지하면서도 맑스주의 개념 역시 포기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맑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언급했던 역사에서의 인간의 ‘행위(Agency)’라는 개념이다. 세르토는 자신의 포스트구조주의적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행위’ 문제를 역사서술의 분야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세르토에 따르면 권력이 일상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행위자는 권력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전술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고유한 실천을 수행한다. 권력 기술의 단순한 적용 대상으로서의 행위자 대신에 권력의 실행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위자의 가능성, 곧 권력의 이해로부터 누락되는, 따라서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의 존재 가능성을 세르토의 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스터에 따르면 그 가능성은 보통 개인의 일상생활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세르토는 ‘행위’ 개념을 통해 서구 근대가 수립한 반석 중의 하나인 ‘주체’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물론 세르토가 가정하는 주체는 데카르트 이래로 서구 근대가 탐닉하는 대상을 관찰하는 주체와는 거리가 있지만, 그가 천착하는 일상생활, 역사서술, 실천, 타자 등의 목직한 주제들에 관한 세르토 고유의 논의는 ‘주체’ 문제에 관한 의심과 재인식에 바탕을 둔다. 미셸 푸코와 비교하자면, 세르토는 푸코와 마찬가지로 “현대 역사서술의 주요 경향(근대 역사서술의 과거에 대한 리얼리즘적 가정, 전체화하는 틀, 경험주의)”에 분명한 비판을 표명하면서도, 역사학계 외부에서 작업하는 푸코에 비해 “푸코보다 훨씬 더 일관되게 역사적 담론에 직접 참여한다.” 한편 세르토의 일상생활 문화 연구는 사회 혁명이나 격변을 위한 거대 전략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세르토의 연구는 “사회적인 것이 봉합되지 않은 성격, 시스템에 의한 일상생활의 완전한 식민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의 작업은 “대중문화의 비합리성을 한탄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대중문화가 항상 이미 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고 파악하는 맑스주의 둘 모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⁵⁾

5) Mark Poster, “The Question of Agency: Michel de Certeau and the History of Consumerism”, *Diacritics*, Vol. 22, No. 2(1992), pp. 94-107. 이런 점에서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생활 연구는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이데올로기 개념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이 설계하는 전략이 만드는 장소는 루이 알튀세르의 ‘호명’이 이뤄지는, 개인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르토의 권력 및 전략에 관한 논의를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개념과 비교하여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세르토

다른 학제와 비교할 때 미셸 드 세르토에 관한 역사학계의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86년 사망 이후 망각 속에 묻혀 있던 세르토는 2002년 가을 그에 관한 저서들이 새롭게 출간되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⁶⁾ 서구 근대 유럽의 타자에 관한 미셸 드 세르토의 연구를 지탱하는 기반은 소위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추상적이고 이론적 사유 또는 ‘언어학적 전환’과 같은 언어와 담론에 대한 강조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고유 명사들로 가득찬 방대한 규모의 문서 자료이다. 다시 말해 세르토의 작업은 실재와 격리된 담론 또는 언어에 대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연구가 아니며 살로 이뤄진 역사적 실체 또는 구체적 삶들이 남긴 역사적 문서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셸 드 세르토가 남긴 학문적 성과의 방대함과 ‘타자’ 개념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유지되는 지난한 탐구 과정 그리고 의지할 만한 연구 성과의 상대적인 부족은 그의 작업을 분석하는 연구자에게 세르토의 사유는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를 구성한다. 국내 역사학 분야에서 역사 쓰기, 일상생활과 문화, 권력과 신비주의 등과 같은 미셸 드 세르토의 주요한 연구 주제를 대부분은 거의 모두 소개되었지만, 미셸 드 세르토 연구는 한 개인의 연구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⁷⁾

가 생각하는 ‘저항’의 의미가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 6) François Dosse, “Enjeux Michel de Certeau et l’écriture de l’histoire”,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78(2003), p. 145. 2002년 이후 출간된 미셸 드 세르토의 저서와 미셸 드 세르토 관련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aris: Gallimard, 2002. Première parution en 1975), Michel de Certeau, Dominique Julia, Jacques Revel, *La politique de la langue* (Paris: Gallimard, 2002), Michel de Certeau, *Histoire et psychanalyse entre science et fiction* (Paris: Gallimard, 2002) avec une préface inédite de Luce Giard, “Un chemin non trace”, François Dosse, *Michel de Certeau, le marcheur blessé* (Paris: La Découverte, 2002), Christian Delacroix, François Dosse, Patrick Garcia, Michel Trebitsch (dir.), *Michel de Certeau. Les chemins d’histoire* (Paris: Ed. Complexe, 2002), Michel de Certeau, “histoire/psychanalyse. Mises à l’épreuve”, *Espaces Temps*, No. 80-81(2002).
- 7) 세르토에 관한 주요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와 근대초 신비주의」, 『프랑스사연구』, 제13호(2005); 장세룡, 「미셸 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뤄진 미셸 드 세르토에 관한 기존 연구는 미셸 드 세르토라는 난해한 사상가의 작업을 국내 학계에 충실하게 소개하였다는 소중한 의의와 함께 막중한 과제 역시 남겼다. 국내에 소개된 미셸 드 세르토의 사상 또는 이론은 세르토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연구자들에게는 난해하고 복잡한 사상으로 비춰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무엇보다 미셸 드 세르토의 복잡한 문장 구성과 복합적 의미들로 구성된 비유적 표현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르토의 작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해석의 필요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1] 장 반 데르 스트래트(Jan Van der Straet)의 <America>

미셸 드 세르토의 ‘타자’에 관한 실제 역사 연구는 16세기로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시대를 다룬다. 이 시기는 서구 유럽의 근대와 구분되는 ‘양시앙 레짐(Ancien Régime)’ 시기로 규정되어 근대 유럽 이전의 단절된 과거로

세르토와 정신분석의 역사학』, 『대구사학』, 제74집(2004);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역사서술론: ‘타자’에 관한 탐구로서 글쓰기」, 『프랑스사연구』, 제9호(2003).

단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많은 역사가들은 ‘근대 초기(Early Modern)’라는 시대 개념을 통해 근대 유럽의 탄생이 과거와의 단절이라기보다는 근대 이전 사회 요소들의 새로운 배치로 이해함으로써, 근대 유럽과 그 이전 시기 간의 명확한 단절을 가정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세르토의 타자 연구 작업에서는 서구 근대 유럽의 탄생 과정을 단절과 연속 어느 한편으로 규정하지 않고, 물질적 자본주의 형성 또는 지성사적 전환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유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납치된 동방 시리아의 공주 ‘에우로페(Europe)’를 이야기하는 그리스 신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유럽’이라는 용어가 서구의 정체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서구가 자신의 타자, 곧 아메리카 대륙의 이질적 문명과의 조우 또는 정복의 시기이다. 낯선 타자와의 만남은 근대 서양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단어를 필요케 하였으며, 문명의 담지자로서 서양은 자신을 유럽이라 명명하며 스스로 유럽인으로 인식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타자를 비유럽적인 존재로 규정하였다. 근대 서구 유럽의 시작은 미셸 드 세르토의 작업을 이론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역사 쓰기』(*L'écriture de l'histoire*)의 권두에 실린 한 삽화⁸⁾가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갑옷을 입고 십자군의 모습을 한 근대 서구 유럽 남성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와 그의 이름을 따라 ‘아메리카’로 불리게 될 나체의 여성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동판화는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아메리카라는 ‘타자’와의 만남으로

8) 장-테오도르 드 브리(Jean-Théodore de Bry)의 *l'Americae decima pars* (Oppenheim, 1619)라는 작품에서 장 반 데르 스트래트(Jan Van der Straet)가 탐험가(A. Vespucci)와 ‘아메리카’(Amérique)라 불리는 여성 인디언의 만남을 그린 우화(참조. J. Amsler, *La Renaissance* (Paris: Nouvelle Librairie de France, 1955), p. 89 ; deuxième tome de L. M. Parias, *Histoire universelle des explorations*). https://snappygoat.com/free-public-domain-images-america-engraving_nova_reperta/7—FgO_TJ0iZgPi1d9oha4rLRcN94CW8YdV2s-vb4X3U.html#0,0,d43bde3fdd7ee05fdd899b3ad2b0207272149bd2 (검색일: 2021년 4월12일).

형성되었던 것은 낯선 야만의 ‘타자’만이 아니라 이성적·과학적·남성적 ‘유럽’의 정체성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유럽’은 이 최초의 순간 이후 지속적으로 아메리카를 ‘비유럽적인’ 타자로 형상화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며, 아메리카 여성은 앞으로 침묵하게 될 것이고, 오로지 서구 남성적이고 권위적인 역사 쓰기를 통해서만 대신 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지고 쓰여지는 것이 서구 근대의 역사이다. 따라서 미셸 드 세르토의 역사서술론은 서구 유럽 근대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역사서술: 타자의 해석학(l’herméneutique de l’autre)

미셸 드 세르토에게 근대성이 탄생하고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한다는 것은 근대성의 의미를 확정하여 어떤 실체를 가정하고 그것의 계보를 추적하는 작업과는 구별된다. 세르토의 ‘혼종학’이 제기하는 ‘타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역사, 문학, 종교 그리고 정신분석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걸친 세르토의 연구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루스 지아르(Luce Giard)에 따르면 그러한 ‘타자에 관한 과학’이 가능하다고 세르토가 생각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타자의 과학’은 세르토의 작업 전체가 지향하는 인식 가능성의 기반을 구성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르네상스에서 계몽주의에 이르는 종교사에 대한 세르토의 연구는 항상 통일된 설명과 포괄적인 이론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세르토는 일관되게 ‘절대적’ 또는 ‘총체적’ 지식에는 회의적이었다.

세르토는 체계화하려는 욕망을 거부한다. 총체화하는 지식을 거부한다. 완결된 과학 또는 완전한 이론을 포기하는 이런 한계의 이점은 대상과 질문의 양식 그리고 연구의 기준들에 대한 선택에서 그에게 부여되는 자유이다. 타자의 과학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서 비판을 받았지만 세르토에게는 항상 사랑하는 욕망의 대상이다.⁹⁾

9) Luce Giard, “Epilogue: Michel de Certeau’s Heterology and the New

세르토에게 역사의 출발점은 ‘실재’라 불리는 과거라기보다는 현재이다. “역사책은 두 계열의 데이터에서 출발해 구축된다.” 한편으로 어떤 과거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존재하며, 이 관념은 과거가 남긴 자료와 연관을 지으면서도 새로운 사고방식이 만든 통로를 따라 운반된다. “다른 한편으로 문서 자료(documents)와 ‘고문서archives’가 있다.” 세르토는 『루뎅의 마귀들림』(*La Possession de Loudun*)을 앞서 말한 관념과 사료의 중간 지대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미셸 드 세르토가 역사 작업을 통해 밝히려는 것은 “한때 생생한 통일성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다.”¹⁰⁾

세르토에게 역사는 부재하는 과거와 현재의 거리 또는 분리를 조건으로 탄생한다. 부재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는 결코 확실한 지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세르토는 과거와 현재의 분리가 역사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분리를 통해 역사학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와 현재의 절단 그리고 분리가 역사학의 존재 조건이다. 부재하는 과거 실재라는 조건으로 탄생한 세르토의 『루뎅의 마귀들림』은 그의 역사 연구 대상과 더불어 연구 방법론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루뎅의 마귀들림』은 1632년 흑사병으로 14,000명의 주민 중 3,700명이 사망하였던 루뎅시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초자연적·악마적 원인에서 발생한 재앙으로 간주된 “흑사병은 도시 사회에 타격을 가하면서 그 정신적·지적 구조를 뒤흔든다.”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신비주의적 광신과 고행에 빠지며, 하늘의 고집스러운 침묵 앞에서 절망하여 불경죄를 저지르고 방탕한 생활에 빠진다.”¹¹⁾ 혼란과 회의가 지배하는 도시의 한 수녀원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루뎅의 마귀들림』

World”, *Representation*, no. 33, Special Issue: The New World(Winter, 1991), pp. 217-218.

10) Michel de Certeau, *La Possession de Loudun* (Paris; Editions Gallimard, 1973, Nouvelle édition en 1980)/미셸 드 세르토, 이충민 옮김, 『루뎅의 마귀들림』 (파주: 문학동네, 2013), 19-20쪽.

11) 미셸 드 세르토, 같은 책, 25-27쪽.

은 순수한 이론적 논의와는 거리를 두는, 감정과 신념을 지닌 수많은 등장인물들로 구성된다. 마귀들림의 희생자인 수녀들은 물론, 마귀들림의 가해자로 판명된 마법사, 마귀들림 사건을 규명하려는 의사, 법관, 성직자, 관료들은 마귀들림 실제 사건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마귀들림 사건 흐름에 관여하는 사회적 변화, 곧 국가 이성이 종교 권력을 제압하는 시대적 변환을 증언한다. 미셸 드 세르토는 ‘마귀들림’이라는 고유한 시대에 고유한 장소에서 벌어진 고유한 사건을 통해 역사가의 작업을 설명한다. 세르토에 따르면 역사가에게는 루뎅의 마귀들림 사건에서처럼 사회의 위협을 제거하도록 요청받는 구마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역사가는 레비스트로스가 인간을 먹는(식인) 사회와 대립되는 의미에서 인간을 토해내는 경향으로 규정했던 사회(우리의 사회)에 속한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인간을 먹는 사회는 무시무시한 힘을 지닌 개인들을 흡입·섭취하는 것이 이 힘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이 힘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사회는 정반대의 해법을 택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든 최종적으로든 [...] 특별하게 준비된 시설에 격리시킴으로써 사회 밖으로 축출하는 것이다.¹²⁾

미셸 드 세르토는 역사 서술이 지닌 구마의식을 설명한다. “인식론적·사회적 기준들의 불확실성과 그러한 기준들을 확립할 필요성 때문에 루뎅에서 가동된 메커니즘은 오늘날에도 다른 ‘마법사들’을 상대로 찾아볼 수 있다. 여전히 어떤 그룹은 마법사들을 축출함으로써 자신을 규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 세르토에 따르면 17세기에 이러한 축출 현상은 “루뎅의 ‘무대’ 만큼 가시적이지는 않더라도 가시적이지 않기에 그만큼 더욱 효과적인 수천 가지 형태로” 확인된다고 말한다. “타자라는 독이 종교 언어에 직접 나타나지 않을 때 사회적 치료술과 사회적 억압은 모습만 달리한다.”¹³⁾

12) 미셸 드 세르토, 같은 책, 383-384쪽.

13) 미셸 드 세르토, 같은 책, 383-384쪽.

세르토에 따르면 역사의 모든 작업은 ‘실재’에 대한 정복 시도이다. ‘실재’는 라캉의 용어로서 세르토는 단어들로 읊길 수 없으면서 항상 문화적 코드라는 프리즘을 통해 불가피하게 인식되는 감지된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용어라는 사실로부터 실재에 대한 정복은 말 그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르토는 근대 서구 학자들이 계속하여 시도하였던 “역사서술”을 그것의 모순어법”, 말하자면 쓰여질 수 없는 것을 쓰는 행위라는 것을 근대 서구가 주변화시킨 타자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¹⁴⁾

세르토는 서구 근대 유럽의 산물로서의 역사학이 작동되는 원리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타자의 학문으로서 근대 역사학이 실행하였던 고유의 ‘타자화’ 작업을 규명하는 연구에 다름이 없다. 근대 역사학은 기업의 상품 생산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역사학자는 주체로서 그리고 죽은 자는 연구의 대상으로 정립한다. 세르토에 따르면 주체 역사가는 다양한 형태의 타자성과 만남으로써 자신에게 제공된 타자화(alteration)를 통해서만이 스스로를 주체로 인정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역사가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만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말은 역사가의 탄생은 타자와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역사가의 현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물론 세르토는 이 만남이 현재에서 이뤄지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세르토는 역사가 주체는 타자의 무대 또는 장면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역사가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자의 무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타자의 무대는 과거, 곧 이미 지나갔기에 부활시킬 수는 없지만 현재에 자취를 남긴 과거에게 제공되는 장소이다. 역사가는 타자와 관련된 연극 무대를 만드는 존재이다. 물론 이 연극 무대는 과거 실재와 관련된 것이지 과거 실재 자체는 아니다. 타자는 역사가 주체의 존재 조건이다. 서구 남성 베스푸치의 신대륙 발견이 서양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스푸치와 대립되는 존재, 곧 아메리카 여성의 존재가 필요하다. 아메리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4) W. Warren Wagar' Review The Writing of Histo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5, No. 2(Apr., 1990), p. 453.

서구 남성의 과학은 아메리카라는 침묵하는 신체를 대신하여 아메리카에 관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셸 드 세르토 작업을 분석하는 주요 연구자 중의 한 명인 프랑수아 도스(François Dosse)에 따르면, 세르토는 “역사 서술 작업을 어제의 언어와 역사가의 현대의 언어 사이에 위치시켰다”. 도스는 세르토가 자신의 실제 역사 작업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이끌었으며, “사건은 그것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성(devenir/becoming)임”을 증명하였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세르토의 역사 연구는 “이야기되는 사실들의 진실성에 관한 증명과 인과관계를 추구하며 사실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가졌던 역사가의 초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사건이 “남긴 흔적을 연구하고 흔적들을 항상 개방된 의미로 구성된 것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17세기 종교사가로서 예수회의 사료를 전착하던 미셸 드 세르토는 과거의 불가능한 부활과 대결한다. 물론 세르토는 과거의 확인과 재구성이라는 전통적인 역사가의 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현재에 되살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총체적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미술레적인 환상 또는 기대를 갖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세르토의 역사 서술 작업이 보여주는 해박하고 세밀한 연구는 과거의 진실에 대한 확신보다는 “과거의 부재와 타자성”이 느껴지는 “해안”으로 비유될 수 있다.¹⁵⁾

그것[과거]은 내게서 빠져나간다. 또는 오히려 나는 그것이 내게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항상 시간 속에 분산된 그 순간에 역사가의 탄생이 시작된다. 이 부재가 역사적 담론을 구성한다.¹⁶⁾

15) François Dosse, “Enjeux Michel de Certeau et l’écriture de l’histoire”, pp. 145-147.

16) Michel de Certeau, “Histoire et structure”, in *Recherches et Débats* (1970), p. 168. 다음에서 재인용. François Dosse, “Enjeux Michel de Certeau et l’écriture de l’histoire”, p. 146.

세르토의 저서에서 역사가의 작업에 관한 이미지로 자주 등장하는 해변, 더 정확하게는 해변의 파도는 역사가에게 다가왔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웅성거림(un murmure)”을 생산한다.¹⁷⁾ 완벽한 복원이 불가능한 부채로부터 역사적 담론이 시작된다. 과거와 연결을 보장하는 사료들, 과거의 사건들을 증명하는 사료들을 찾고 분석하는 역사가는 현재에 사라진 과거를 부활시키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을 회피하는 과거를 인정해야만 한다. 세르토는 다가갈 수 없는 과거라는 인식에서 역사는 시작된다고 믿는다. 부채는 역사 담론의 숙명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세르토에게 부채, 곧 타자성은 역사학이 숨겨야 할 치욕이나 치부가 아니라 역사학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자 대상 자체이다.¹⁸⁾

IV. 역사 서술 작업(l'opération historiographique)

서구 근대 이래 역사 쓰기는 죽은 자들이 남긴 문서를 해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체 역사가와 이미 죽어 만날 수는 없지만 해독되어야 할 글들을

17)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aris: Gallimard, 2002), p. 15. 역사 쓰기에 대해 세르토가 제시한 ‘해변’과 ‘파도’의 비유는 세르토와 입장을 달리하며 역사학의 ‘실재’ 재현 임무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흥미롭다. 노라는 『기억의 장소 1. 공화국』에서 “살아 있는 기억의 바다가 물러갔을 때 해변에 남아 있는 조개”가 자신이 수립하고자 하는 ‘기억의 장소’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는 세르토의 ‘해변’과 ‘웅성거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노라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을까? 세르토식의 역사 쓰기의 경향이 역사를 죽은 것에 대한 학문으로 화석화시켰다고 비판하는 피에르 노라가 세르토의 비유적 표현을 차용하여 실제 존재하는 ‘조개’로 구성되는 작업이 역사임을 주장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르토의 ‘해변’ 비유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세르토의 저서 『역사 쓰기』(L'écriture de l'histoire)를 1975년 갈리마르(Gallimard) 출판사의 <Collection Bibliothèque des Histoires> 기획으로 출판한 이가 피에르 노라였기 때문이다. Pierre Nora(dir.), *Les Lieux de mémoire* (3 tomes: *La République/La Nation/Les France*) (Paris: Editions Gallimard, 2005)/ 피에르 노라의 지음, 김인중·유희수·문지영·양희영 옮김, 『기억의 장소 1. 공화국』 (서울: 나남, 2010), 42쪽; Francois Dosse, *Michel de Certeau Le Marcheur blesse* (Paris: La Decouverte, 2002), p. 264.

18) Brayan Reynolds and Joseph Fitzpatrick, “The Transversality of Michel de Certeau: Foucault’s Panoptic Discourse and the Cartographic Impulse”, *Diacritics*, vol. 29, no. 3(Autumn, 1999), p. 77.

써서 남긴 자 간의 채울 수 없는 단절 또는 간격으로부터 만들어 진다. 세르토는 타자에 대한 해석학으로서의 역사 쓰기를 혼종학으로 부른다. 현재의 주체로 가정된 역사가가 죽은 타자에 관해 생산한 담론, 곧 혼종학(hétérologies)으로서의 역사서술은 자신의 고유한 담론을 유지하는 지식과 그 담론을 가능케 하고 지탱하는 무덤 속 사자(死者) 간의 분리가 작동하여 구성된다. 세르토에 따르면 역사서술이 작동하는 이 분리는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없다.

세르토는 『역사 쓰기』 전체에 걸쳐 ‘역사서술 작업’(l’opération historiographique) 개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혼종학으로서의 역사 쓰기는 순수하고 중립적인 학문 활동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소들이 투입되어 변환되는 공장의 상품 생산 작업 과정과 같은 복합적 과정임을 강조한다. ‘장소’, ‘시간’, ‘의미’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란 주제로 구성된 『역사 쓰기』는 세르토를 역사서술에 관한 프랑스의 저명한 이론가 미셸 푸코, 자크 랑시에르와 같은 반열에 서도록 만든 저서이다. 세르토의 기본적 역사서술론은 『역사 쓰기』의 1부 ‘장소의 생산’에서 그 핵심적인 구조를 찾을 수 있다. 세르토의 역사서술에 대한 난해하고 복잡한 분석과 설명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때 세르토가 제시한 공장에서의 작업(opération) 개념을 상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르토에게 역사가의 작업은 공장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공정 또는 작업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산업적 활동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폴 리쾨르(Paul Ricœur) 역시 세르토의 ‘역사서술 작업(l’opération historiographique)’ 용어를 차용하여 역사와 기억 그리고 서사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도 한다. 세르토는 이 역사서술 작업 과정을 다시 세 가지로, 곧 ‘사회적 장소(un lieu social)’, ‘실천(une pratique)’, ‘쓰기(une écriture)’로 구분하여, 그 각각의 성격을 특유의 난해한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먼저 세르토에게 역사 쓰기는 사회적 장소의 산물이다. 역사 쓰기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생산의 장소를 가진다. 여기서 ‘장소’는 지식의 객관적 인식을 보증하는 자리(place)라기보다는 역사가가 연구를 수행하는

실제적 또는 현실적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역사학계가 역사가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강제하는 연구 풍토일 수도 있으며, 역사가가 속한 학교 또는 연구소와 같은 실제 기관이거나 연구재단이 공고하는 각종 사업과 같은 제도적 기관일 수도 있다. 세르토가 말하는 사회적 장소는 역사가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서적이거나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연구 행위에 개입하면서도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에서는 빠져 있는 “지식의 제도(une institution du savoir)”¹⁹⁾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역사학이라는 학제가 작동하는 곳으로서의 ‘장소’를 의미한다.

세르토는 역사의 진실을 주장하던 실증주의 시대는 완전하게 종결되었다는 역사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더 이상 역사적 사실들을 전달 또는 발굴하는 특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 쓰기의 장소에 관해 사유한다. 역사가가 작업하는 역사 쓰기의 장소는 무엇보다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결정과 선택이 일어나는 곳이다. 역사 쓰기 장소에 역사가 개별적 주체와 그가 연구하는 대상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상적인 허구에 불과하다. 사실 이곳에서는 역사가가 활동이 이뤄지는 물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물론 규칙이나 법률과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가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대 과학의 수립과 무관하지 않으며 근대 학제들의 수립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세기의 대학을 거치면서 역사학은 다른 학제와 마찬가지로 “한 집단의 법이자 과학적 연구의 법이라는 양가성”을 지니게 된다. 역사 쓰기 장소에서 역사가는 집단의 규칙과 역사학의 과학적 연구라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세르토의 역사 쓰기 장소는 역사가가 그가 속한 사회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그 관계는 역사가의 담론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하여지지 않는 것(le non-dit)’을 구성한다.²⁰⁾ 따라서 역사는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난 순수 학문일 수 없다.

19)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 82.

20) Michel de Certeau, *L'écriture de l'histoire*, p. 79-84.

세르토는 프랑스 역사학에서의 “지식(un savoir)과 장소(une place) 간의 은밀한 관계”에 관한 글레니송(J. Glénisson)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글레니송은 보고서에서 프랑스 역사서술은 대학의 고위 교수직에 있는 소수의 교수들이 연구를 관리하며, 대학 고위직으로의 교수 승진에 맑스주의로부터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지난 4세기 이래 역사학의 과학적 진화에 역사학 제도 또는 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프랑스 역사학은 프랑스 문화에 대한 광신적 애국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라틴 지역에 대한 연구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재정적 이유로 과도하게 민족주의적 이해관계를 강조하였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사회의 특정 장소에서 생산되는 지식은 ‘중립성’, ‘순수성’ 또는 ‘객관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²¹⁾

역사 연구는, 개인적 철학의 효과 또는 지나간 “실재”의 재출현이라기보다는, 공장에서 출시되는 자동차처럼 특정하고 집단적인 제조 복합체 *complex*와 관련된 다. 역사 연구는 한 장소의 산물이다.²²⁾

세르토가 역사 쓰기가 사회의 특정한 장소의 산물이라는 설명은 단순히 역사 쓰기가 무엇인가 형성되는 과정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역사 쓰기 ‘장소’에서 ‘생산’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허용된 것’만이 역사 쓰기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역사 쓰기 장소에는 ‘허용된 것’과 함께 ‘금지된 것’이 작동하여 역사 고유의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두 번째로 세르토는 역사 쓰기는 말 또는 담론이라기보다는 실천(une pratique), “역사 만들기(faire de l’histoire)”²³⁾ 실천이라고 말한다. 역사

21) *Ibid.*, p. 85.

22) *Ibid.*, p. 88.

23) 세르토는 두 가지 종류의 역사 만들기를 언급한다. 먼저 부분관사 역사 만들기(faire de l’histoire)는 일반적으로 역사가가 수행하는 역사 쓰기 작업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정관사 역사 만들기(faire l’histoire)가 있으며, 이는 역사가의 작업이라기보다는 ‘군주’의 작업이라고 세르토는 말한다. 『역사 쓰기』(*L’écriture de l’histoire*)의 영역본에는 두 가지 역사 쓰기를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한다. 영역본에서는 ‘faire de l’histoire’를 ‘making of history’

쓰기가 실천이라는 사실로부터 세르토는 역사 쓰기는 역사를 생산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역사 쓰기는 고유한 도구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역사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역사 쓰기는 무엇보다도 어떤 대상을 분리하고 정리하여 자료로 만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세르토는 ‘문화적 분배 또는 분류(*la répartition culturelle*)’라고 부른다. 문화적 분류 행위는 자료를 단순히 수용한다기보다는 자료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역사 쓰기 실천은 시대에 따라 고유한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역사 쓰기 작업은 고정된 모델이나 전형적인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역사 쓰기는 시대의 변화와 무관한 이상적인 모델이나 원형을 지닌 학제가 아니다. 역사에서 자연적 요소들은 문화적 환경으로 변환된다.

역사가는 자연을 인공화한다. 그는 자연을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따라서 인간의 자연을 수정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역사가의 기술들은 역사가를 정확히 이런 절합에 위치시킨다. 이 실천의 수준에 위치하면 우리는 자연적인 것을 사회적 것과 대립시키는 이분법을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자연의 사회화와 사회적 관계의 “자연화(또는 물질화)” 간의 결합을 만난다.²⁴⁾

세르토는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대의

로 ‘faire l’histoire’를 ‘making history’로 번역하기도 하고(*The Writing of History*, p. xxvii), ‘faire de l’histoire’를 ‘making history’로 번역하기도 한다(*The Writing of History*, p. 19). 한편 ‘faire l’histoire’를 ‘produce history’로 번역하기도 한다(*The Writing of History*, p. 7). 중요한 것은 역사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역사의 영역은 정관사 역사가 아닌 부분 관사 역사가라는 점이다. 역사가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이야기 모두가 정관사 역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역사 만들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부분관사 역사 만들기(*faire de l’histoire*)를 의미한다. 세르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역사 만들기를 구분하며 역사가의 작업을 설명한다. “역사가는 정관사 역사를 만들지 않으며(*il ne fait pas l’histoire*), 역사가는 단지 부분 관사[일부분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 뿐이다(*il ne peut que faire de l’histoire*). 이 부분 관사는, 그의 것은 아니지만, 그것 없이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서술적 분석을 할 수 없었을 지위(*position*)에 대해 그가 차지하는 몫(*part*)을 나타낸다. 역사가는 단지 권력의 “결에” 있을 뿐이다.” *Ibid.*, p. 22.

24) *Ibid.*, p. 98.

역사학은 과거에 실천되었던 고전적 모델, 곧 자료에서 출발하여 해석을 거쳐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전복한다고 생각한다. 컴퓨터로 인해 오늘날 역사가가 다루는 정보량은 사실상 무한에 가깝다. 세르토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와 같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작업하던 역사가의 작업이 “회귀성”(과거의 잔재)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종합(현재의 이해)에 이르렀다면, 현대의 역사가는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제공하는 막대한 양의 정보량에 대한 형식화(현재의 시스템)에서 출발하여 “잔재들”(한계의 지표 그리고 이를 통한 그 작업의 생산물인 “과거”의 지표)를 만들어 낸다고 말할 수 있다.²⁵⁾ 역사가는 자료들을 수용한다기보다는 자료를 구성한다.

역사가는 더 이상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역사가는 더 이상 지구사(une histoire globale)라는 천국을 목표로 할 수 없다. 역사가는 그로부터 획득된 합리화를 주위를 돌게 된다. 역사가는 변방에서 작업한다. 이 점에서 역사가는 배회자가 된다.²⁶⁾

이처럼 세르토는 역사에게 과거에 신화화되었던 총체화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역사적 실천 이론을 모색한다. 세르토에 따르면 백 년 전만 해도 역사적 지식은 모든 사회의 변화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를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그렇게 재현된 과거는 역사가의 오늘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지어진 간격, 곧 역사 이야기를 시작할 때 등장하는 “옛날은 오늘과 같지 않았다”는 구절은 ‘과학적’ 역사 연구의 결과이며 구성된 ‘의미’가 아니었다. 하지만 세르토는 이제 총체적 사회를 재현하려는 과학적 연구는 불가능하며, 과거와 현재 간의 간격을 극복될 수 없는 역사학의 한계이자 기반임을 인정한다.

셋째로 세르토는 역사서술 작업이 ‘쓰기(une écriture)’ 실천임을 강조한다. 역사 쓰기는 사회적 장소에서 수행하는 실천의 산물이다. 어떤

25) *Ibid.*, p. 109.

26) *Ibid.*, p. 109.

실천인가? 역사 쓰기는 사회적 장소에서 실천하는 쓰기이다. 쓰기란 무엇인가? 세르토에 따르면, 쓰기는 “쓰기의 형성(*la construction d'une écriture*)”이며, 넓은 의미로는 “기표의 조직(*une organisation de signifiants*)”으로서, “상당히 많은 관점으로의 낯선 이동(*un passage à bien des égards étrange*)”이다. 우선 역사 쓰기는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사물들의 시간은 담론적 시간 속으로 유연하게 흡수된다. 역사 쓰기는 텍스트로의 구성이며, 역사가가 특정 사회적 장소에서 수행하는 연구 실천과는 다른 시간적 차원(담론적 시간 차원)을 지닌 담론으로 구성된, 곧 시작과 진행 그리고 종결로 구성되는 과거에 관한 편집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르토가 역사 쓰기의 세 번째 마지막 특성으로 쓰기를 제시한다는 사실로부터, 세르토의 역사 쓰기가 기호의 자의성이나 텍스트의 폐쇄성을 주장하는 구조주의 패러다임을 수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세르토의 역사 ‘쓰기’는 단순히 담론은 외부 실재와 구분되어 그것을 반영한다는 소박한 언어에 대한 반영이론과도 분명하게 구분된다. 세르토의 쓰기는 의미의 체계라기보다는 과거에 관한 작업(*une opération*)이자 실천으로서, 죽은 자를 무대에 올리는 “재현-문학적 연출(*la représentation-mise en scène littéraire*)”이다. 역사 쓰기는 실제 역사가가 수행하는 연구의 진행 방향과 다르다. 현재에서 과거로의 진행이 아니라 역사 쓰기는 역사가가 가정한 ‘시작’에서 출발하여 연대기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역사 쓰기의 텍스트는 과거 사건의 실제적 발생 연대기와도 구분되는 쓰기의 진행 규칙을 가진다. 다시 말해 역사 쓰기는 원래 실재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작과 진행 그리고 결말로 구성되는 구조를 드러낸다.²⁷⁾

세르토는 역사 쓰기를 장례 의식으로 비유한다. 세르토에 따르면, 쓰기는 죽은 자에 대한 매장 의식의 역할을 한다. 쓰기는 죽은 자를 담론 안으로 초대한다. 한편, 쓰기는 현재에 고유한 공간을 연다. 과거를 무대에 올리는 것은 과거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하나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다.

27) *Ibid.*, pp. 119-120.

“쓰기는 과거를 매장하기 위해서만 과거에 대해 말한다”. 다시 말해 쓰기는 과거만을 위한 칭송과 같은 담론 생산이 아니라, 과거를 매장함으로써 현재에 무엇인가 만들고 공헌하기 위한 담론 생산이다. 따라서 세르토에게 쓰기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사자(死者)에 대한 무덤이다.²⁸⁾

‘역사는 쓰기이다’라는 세르토의 주장은 역사 쓰기가 언어적 제약을 받으면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작업으로서 그 담론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실천임을 강조한다.

그기능은 두 측면으로 명시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그 용어의 민족지학적이며 유사종교적 의미에서 쓰기는 **장례 의식**이라는 역할을 한다; 쓰기는 죽은 자를 담론으로 안내하며 그를 몰아낸다. 다른 한편, 쓰기는 **상징화** 기능을 가진다; 쓰기는 사회가 언어로 과거를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자리 잡도록 허용하며, 그렇게 현재에 고유한 공간을 연다: 과거를 “표시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하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러나 또한 가능성들의 공간을 재분배하고 부정적으로 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과로 죽은 자들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의 자리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²⁹⁾

세르토가 말하는 역사가의 쓰기는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을 만든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담론이라기보다는 수행적 쓰기이다. 한편 역사가의 쓰기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징적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역사는 과거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다. 과거를 쓰는 것은 죽은 자에게 장소를 만드는 것이며, 그런 행위를 통해 새로운 현재의 가능성들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역사가의 쓰기는 따라서 죽은 자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기념하며, 그와 동시에 그의 부재를 확인하는, 곧 그를 몰아내고 제거하는 이중적 의미에서 죽은 자에게 무덤을 조성하는 작업 또는 노동이다.

28) *Ibid.*, p. 140.

29) *Ibid.*, pp. 139-140.

역사가의 작업은 역사가의 현재의 장소에서 생산되는 담론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분할과 단절이 만들어 낸 공백을 채운다. 사실 세르토의 설명을 따르자면 순수한 현재 또는 순수한 과거는 역사가의 작업에서 상상할 수 없다. 역사가의 작업에서 현재와 과거는 근본적으로 혼종적인 작업 안에서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재료 ‘과거’가 순수한 ‘현재’라는 이름의 역사 공장에 도착하여 순수한 ‘현재’ 역사가의 작업을 거쳐 역사 담론이라는 순수한 ‘현재’ 상품이 생산된다는 생각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역사서술 작업의 산물로서의 역사적 담론은 과거에 관해 말하면서 현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부연하자면 역사적 담론을 생산하는 역사가는 작업 시작 이전에 이미 과거에 ‘오염’되고, 역사가가 자료를 다루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현재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를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작하려는 역사가의 책상 위에 놓여진 문서 자료들을 순수한 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주제’, ‘선택’, ‘관련 자료’, ‘수집’, ‘역사가’ 단어들은 현재의 ‘오염’을 나타내며, 문서고에 보관되었다가 역사가에게 선택된, 과거 누군가가 작성한 ‘문서 자료’도 마찬가지로 과거 작성 시점 이후 다양한 ‘현재’의 과정을 통해 선택·보존·처리라는 ‘오염’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근대 서구가 가정하는 과거와 현재의 엄격한 분할에 기초하여 과거 진실 또는 진리를 현재에 재현하는 역사가의 작업은 상상 또는 이상의 세계에서 가능할 뿐이다.

V. 결말

역사 쓰기에 대한 미셸 드 세르토 분석 작업을 서구 근대성과 관련지어 평가하자면, 그것은 서구 근대 역사학의 민족지학적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의 총체성을 수립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따라서 넓게 보자면 세르토의 작업은 서구 근대성 형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이해할 수 있다. 세르토에 따르면 총체적인 과거를 수립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세르토는 근대 서구의 대문자 역사에서 주변화된 타자들의 장소에 주목한다. 세르토는 역사가를 자주 배회하는 자, 걸어가는 자 또는 여행자로 비유한다. 낯선 곳을 방문하고 돌아온 여행가는 출발할 때의 여행가와는 다른 존재이다. 세르토 특유의 삼각 구도는 역사서술에 대한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발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곧 부재하는 죽은 자와의 만남 그리고 귀환으로 이뤄지는 세 개의 꼭지점들이 만드는 여정이 역사가의 작업 경로이며 아메리코 베스푸치와 아메리카 나체 여성의 만남 역시 그러한 삼각 구도로 형성되는 동일한 궤적을 보여준다.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귀환한 베스푸치는 출발 이전의 베스푸치와는 다르다. 죽은 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역시 마찬가지다. 세 개의 지점을 통해 세르토는 서양의 근대 역사는 죽음에 기반을 둔 쓰기 실천임을 보여준다. 역사 쓰기는 현재에 부재하는 자들을 호출 또는 창조하여, 현재에서 말하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역사 쓰기는 이 부재자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역사 쓰기는 죽음을 조건으로 삼으며, 그와 같은 과거와의 단절로부터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 쓰기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현재(역사가)와 죽음(사자)의 만남이다. 반 데르 스트래트(Jan Van der Straet)의 동판화에서 나체의 여성 아메리카는 호출되어 임무를 마치면 서구 남성이 마련한 침묵의 자리로 돌려보내지듯이, 죽은 자는 역사가로부터 호출되어 삶을 부여받고 증언을 하고, 이후 역사가가 마련한 침묵의 무덤으로 보내진다. 따라서 세르토는 역사의 모든 작업은 과거를 호출하여 진실을 말하게 하고 다시 죽음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과거에 대한 ‘정복’ 사업이라고 말한다. 정복은 사실 불가능하다. 현재와 과거 간의 죽음 또는 단절의 경계를 삭제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 쓰기 용어 자체가 모순어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쓸 수 없는 것을 쓰는 작업이다. 그러나 서구 유럽은 근대 이래 계속해서 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지금도 역사는 쓰이고 있다.

미셸 드 세르토는 지속적으로 역사 쓰기의 모순 또는 ‘역설’을 환기시킨다.

세르토에 따르면 근대 서구 역사는 근본적으로 현재와 과거 사이의 결정적인 구별, 단절 또는 차이와 함께 시작한다. 역사가는 과거의 죽은(지나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선을 그려야만 자신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세르토에 따르면 근대 서구는 죽음에 집착한다. 과거를 죽음의 무덤에 가두고 자신과 뚜렷하게 구별하는 ‘단절’로부터 근대 서구 역사는 시작된다. 세르토에게 역사는 현재의 역사가와 죽음의 만남으로 구성되는 장소로서, 산 자 또는 부재하는 죽은 자, 그 누구만의 고유 영역도 아니며 삶과 죽음의 하이브리드적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 시간 그리고 의미이다. 세르토에게 역사 쓰기는 “죽음에 관한 작업이자 죽음에 반하는 작업(travail de la mort et travail contre la mort)”³⁰⁾이다. 이와 같이 근대 서구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인식론에 대항하는 세르토는 역사란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결합하는 혼종적인 하이브리드 작업임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세르토는 서구 근대의 역사를 대문자 역사가 아닌 죽음에 집착하는 서구 고유의 역사로 비판적으로 다시 쓰는 대담한 기획을 시도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mistoire@naver.com

주제어(Key words):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역사 서술(Historiography), 타자(Other), 혼종학(Heterology), Simulation), 하이브리드(Hybrid), 근대성(Modernity)

투고일: 2021.04.14, 심사일: 2021.05.12, 게재확정일: 2021.05.13.

30) *Ibid.*, p. 19. 인용 구절은 *L'écriture de l'histoire*의 영역본에서는 ‘A labour of and against death’로 번역된다. 다시 말해 역사가의 ‘travail’를 ‘노동’을 의미하는 ‘labour’로 번역하고 있다. ‘travail’는 ‘작업’과 ‘노동’ 모두 의미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대체로 ‘travail’를 ‘작업’으로 번역한다.

<국문초록>

하이브리드 시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역사서술 다시 읽기(또는 다시 쓰기)

양재혁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 기술의 시대는 수많은 ‘하이브리드’ 존재들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더 이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어느 한 분야로 한정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적인 존재들과 그것들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론적 태도를 요구한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기존의 이분법적 인식 태도로는 감당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서구의 이분법적 근대성의 균열을 확인한 ‘하이브리드’ 사상가로 잘 알려진 역사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가 전통적 역사학에게 던진 새로운 ‘하이브리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르토에게 역사는 현재의 역사가와 죽은 자가 만나는 장소이며, 산 자 또는 죽은 자 그 누구만의 고유 영역도 아니며, 삶과 죽음의 혼종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 시간 그리고 의미이다.

<Abstract>

Re-reading(or Re-writing) Michel de Certeau's
Historiography in the Hybrid Era

Yang, Jaehyuk

The advanced scienc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re producing numerous 'hybrid' beings. Most problems facing contemporary society consist of hybrid beings and their interconnection network, which could not be limited to a specific field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science, etc. It requires us to have a new epistemological attitude, which means that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society could not be handled by the conventional epistemological frameworks. This article aims to confirm the new 'hybrid' thinking being thrown at traditional historians by Michel De Certeau, a historian well known as 'hybrid' thinker who identify the cracks of dichotomous modernity of the West. For Certeau, history is a place where the present living historians meet the dead. Also it is neither a place for the living nor for the dead, but a new place, and time as well as meaning itself created by a hybrid combination of life and death.

참 고 문 헌

1. 미셸 드 세르토 저서

La Correspondance de Jean-Joseph Surin, texte établi et présenté par Michel de Certeau, préface de Julien Green (Paris: Desclée de Brouwer, 1966).

L'Absent de l'histoire (Paris: Mame, 1973).

La Possession de Loudun (Paris; Editions Gallimard, 1973, Nouvelle édition en 1980)/미셸 드 세르토, 이충민 옮김, 『루팡의 마귀들림』 (과주: 문학동네, 2013).

L'Écriture de l'histoire (Paris: Gallimard, 2002. Première parution en 1975).

La Fable mystique : XVIe et XVIIe siècle (Paris: Gallimard, 1982; réédition en 1995).

L'Ordinaire de la communication, en collab. avec Luce Giard (Paris: Dalloz, 1983).

L'Invention du quotidien, 1: Arts de faire et 2: Habiter, cuisiner, éd. établie et présentée par Luce Giard (Paris: Gallimard, 1990, 1re éd. 1980).

Le Lieu de l'autre: histoire religieuse et mystique (Paris: Le Seuil, 2005).

La Fable mystique : XVIe et XVIIe siècle, tome 2 (Paris: Gallimard, 2013).

2. 국내 참고 문헌

이승철, 「후기자본주의에서의 권력 작동 방식과 일상적 저항전술에 관한 연구 : 기 드보르[Guy Debord]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와 근대초 신비주의」, 『프랑스사연구』, 제13

하이브리드 시대 미셸 드 세르토의 역사서술 다시 읽기(또는 다시 쓰기)

호(2005).

_____, 「미셸 드 세르토와 정신분석의 역사학」, 『대구사학』, 제74집 (2004).

_____, 「미셸 드 세르토의 역사서술론: ‘타자’에 관한 탐구로서 글쓰기」, 『프랑스사연구』, 제9호(2003).

조민아, 「위험하고 위태로운 당신의 몸, 그 몸으로 신학하기-미셸 드 세르토(1925-1986)」,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제991호(2011).

3. 국외 참고 문헌

Jean Amsler, *La Renaissance* (Paris: Nouvelle Librairie de France, 1955).

Jeremy Ahearne, *Michel De Certeau: Interpretation and Its Othe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_____, “Questions of Cultural Policy in the Thought of Michel de Certeau (1968-1972)”, *South Atlantic Quarterly Spring*, Vol. 100, No. 2(2001).

William Barbieri, “The Heterological Quest: Michel de Certeau’s Travel Narratives and the “Other” of Comparative Religious Ethics”, *The Journal of religious ethics*, Vol. 30, No. 1(2001).

Philippe Boutry, “De l’histoire des mentalités à l’histoire des croyances: La possession de Loudun”, *Le Débat*, No. 49(1988).

Ian Buchanan, “Heterophenomenology, or de Certeau’s Theory of Space”, *Social Semiotics*, vol. 6, no. 1(1996).

Ian Buchanan, “De Certeau and Cultural Studies”, *New Formations*, vol. 31(1997).

_____, *Michel de Certeau : Cultural Theorist* (Londres: Sage, 2000).

Philippe Carrard, “History as a Kind of Writing: Michel de Certeau and the Poetics of Historiography”, *South Atlantic Quarterly Spring*, Vol. 100, No. 2(2001).

- Roger Chartier, “Michel de Certeau: History, or Knowledge of the Other”, *On the Edge of the Cliff: History, Languages and Practices*, ed. Roger Charti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 Claire Colebrook, “Certeau and Foucault: Tactics and Strategic Essentialism”, *South Atlantic Quarterly Spring*, Vol. 100, No. 2(2001).
- Maria Letizia Cravetto, “The Emancipation of Thought: On the Work of Michel de Certeau”, *Diogenes*, Vol. 199, No. 3(2003).
- Kathryn Crim, “The Ghostly Gait of Michel de Certeau”, *QUI PARLE*, Vol. 24, No. 1-2(2016).
- Christian Delacroix, François Dosse, Patrick Garcia et Michel Trebitsch, *Michel de Certeau. Les chemins de l’histoire* (Bruxelles: Complexe, 2002).
- François Dosse, *Michel de Certeau, le marcheur blessé* (Paris: La Découverte, 2002).
- _____, “Paul Ricœur, Michel de Certeau et l’Histoire: entre le dire et le faire”, conférence à l’École nationale des chartes, mardi 22 avril 2003.
- _____, “Enjeux Michel de Certeau et l’écriture de l’histoire”,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78(2003).
- Luce Giard al., *Le Voyage mystique: Michel de Certeau* (Paris: Cerf, 1988).
- _____, “Michel de Certeau, historien”, *Le Débat*, No. 49(Marche-April 1988).
- _____, “Epilogue: Michel de Certeau’s Heterology and the New World”, *Representation*, No. 33, Special Issue: The New World(Winter, 1991).
- Graham Giles, “The Concept of Practice, Enlightenment Rationality and Education: A speculative reading of Michel de Certeau’s The

- Writing of History”,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Vol. 46, No. 3(2014).
- Stephen Hartnett, “Michel de Certeau’s Critical Historiography and the Rhetoric of Map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31, No. 4(1998).
- Ben Highmore, “An epistemological awakening: Michel de Certeau and the writing of culture”, *Social Anthropology-Cambridge-*, Vol. 15, No. 1(2007).
- Frede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Duke UP, 1991).
- Jacques Le Brun, “Michel de Certeau, Historien de la spiritualite”, *Recherches de science religieuse*, Vol. 91, No. 4(2003).
- Emmanuel Le Roy Ladurie, “Le diable archiviste”, in Emmanuel Le Roy Ladurie, *Le territoire de l’historien* (Paris: Gallimard, 1970).
- Emmanuel Lincot, “Penser l’inter-culturalité à partir de Michel de Certeau”, *Transversalites*, No. 100(2006).
- Éric Maignet, “Les trois héritages de Michel de Certeau. Un projet éclaté d’analyse de la modernité”, *Annales: histoire, sciences sociales*, Vol. 55, No. 3(2000).
- Régis Marion-Veyron, “L’antipsychiatrie revisitée par l’œuvre de Michel de Certeau/The anti-psychiatry approach reexamined through the work of Michel de Certeau”, *L’évolution psychiatrique*, Vol. 69, No. 1(2004).
- Sharon M. Meagher, “Philosophy in the streets Walking the city with Engels and de Certeau”, *City*, Vol. 11, No. 1(2007).
- Jon P. Mitchell, “A fourth critic of the Enlightenment: Michel de Certeau and the ethnography of subjectivity”, *Social Anthropology*, Vol. 15, No. 1(2007).
- Jürgen Pieters, “New Historicism: Postmodern Historiography between Narrativism and Heterology”, *History and Theory*, Vol.

39(2000).

Philippe Poirrier, *Les Enjeux de l'histoire culturelle* (Paris: Seuil, 2004).

Jacques Revel, "L'histoire au ras du sol", Giovanni Levi, *Le pouvoir au village: Histoire d'un exorciste dans le Piémont au XVIIe siècle* (Paris: Gallimard, 1989).

Bryan Reynolds, "The Devil's House, 'or worse': Transversal Power and Antitheatrical Discourse in Early Modern England", *Theatre Journal*, Vol. 49, No. 2(May, 1997).

Brayan Reynolds and James Intriligator, "Transversal Power: Molecules, Jesus Christ, The Greatful Dead, and Beyond", Manifesto Conference,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y 9, 1998.

Brayan Reynolds and Joseph Fitzpatrick, "The Transversality of Michel de Certeau: Foucault's Panoptic Discourse and the Cartographic Impulse", *Diacritics*, Vol. 29, No. 3(Autumn, 1999).

Mark Poster, "The Question of Agency: Michel de Certeau and the History of Consumerism", *Diacritics*, Vol. 22, No. 2(Summer, 1992).

Dominique Salin, "Michel de Certeau et la question du langage", *Recherches de science religieuse*, Vol. 104, No. 1(2016).

Sue Saltmarsh, "Michel de Certeau, everyday life and policy cultures: the case of parent engagement in education policy", *Critical Studies in Education*, Vol. 56, No. 1(2015).

Jerrold Seigel, "Mysticism and Epistemology: The Historical and Cultural Theory of Michel De Certeau", *History and theory*, Vol. 43, No. 3(2004).

Richard Terdiman, "The Response of the Other", *Diacritics*, Vol. 22, No. 2(Summer, 1992).

_____, "The Marginality of Michel de Certeau", *South Atlantic Quarterly Spring*, Vol. 100, No. 2(2001).

François Trémolières, "Michel de Certeau. Le travail de l'œuvre

하이브리드 시대 미셸 드 세르토의 역사서술 다시 읽기(또는 다시 쓰기)

- Michel de Certeau, La Fable mystique II”, *Critique*, Vol. 72, No. 828(2016).
- Pierre Vallin, “Michel de Certeau, Des notes de lecture”, *Recherches de science religieuse*, Vol. 91, No. 4(2003).
- Torbjörn Wandel, “Michel De Certeau’s Place in History”, *Rethinking History*, Vol. 4, No. 1(2000).
- Graham Ward (ed.), *The Certeau Reader* (Oxford: Blackwell, 2000).
- _____, “Michel de Certeau’s “Spiritual Spaces””, *South Atlantic Quarterly Spring*, Vol. 100, No. 2(2001).
- _____, “The Weakness of Believing: A Dialogue with de Certeau”, *Culture, Theory and Critique*, Vol. 52, No. 2-3(2011).
- W. Warren Wagar’ Review on Michel De Certeau’s The Writing of Hsitory, translated by Tom Conle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5, No. 2(Apr., 1990).
- Wim Weymans, “Michel de Certeau and the Limits of Historical Representation”, *History and Theory*, Vol. 43, No. 2(May, 2004).